평가원 "수능 문제·정답 이상없다"

교육부 성적 발표 앞당기는 방안 검토

교육부가 최근 '수능 등급제'를 둘러싼 대입진학 지도 혼선 양상이 계속되자 수능 성적 발표 일정을 당초 예정인 12월12일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 한 당국자는 28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수능 최종 성적을 하루라도 빨리 전달해 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험생들은 2008학년도에 첫 적용될 수능 등급제로 인해 가채점 결과만 가지고는 자신의 등급을 제대로 잡아내기 어려워 대입 진로를 결정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에 대해 '이상 없다'고 결론내리고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했다.

채점은 답안지에 정답 표기 외 사소한 실수로 잉크가 묻어 있어 컴퓨터가 '오답'으로 체크하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작업부터 먼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채점은 일부에 한해 많게는 3회까지 시행되고 이후 표준 비율에 따른 수능 등급 분석 작업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수능 등급제 첫 시행으로 올 대입에서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입 논술시험을 앞두고 광주 대성학원에서 수험생들이 통합논술 강의를 들으며 실전문제를 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고3생 논술 총력전

경신여고 등 자체 프로그램 마련 지도

학원들 5주 과정 개설 단기 집중 강의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논술학원이 대입논술 시험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수능 등급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상위권 수험생의 내신 등급간 점수 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내신 변별력을 떨어뜨려 논술의 실질 비중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등학교들이 자체 내실있는 논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집중 지도하면서 예년과 달리 서울로 논술을 배우러 가는 학생들은 전체 5명 내외로 크게 줄었다.

◇학교에선 지금=광주 경신여고는 지난해부터 3개년 논술 계획에 따라 학년별로 각기 다른 논술 교육을 진행 중이다. 다른 과목 8명의 교사들이 글의 요약부터 시작해 1~3단계로 나눠 3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육청과 학교 연수를 통해 논술교육을 준비했으며, '독서 논술교육 연구회'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 지도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 인터넷 '다음'(www.daum.net)에 '논행(논술로 행복해지는 삶) 카페'(http://cafe.daum.net/nonhappy)를 만들어 학생들의 글 첨삭·토론·논술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금호고의 경우 1주일에 2번씩 2명의 사회·국어과 교사가 동시에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 19일부터는 논술을 준비하는 13명의 학생과 매일 4시간씩 실전문제 위주로 쓰기 교육을 하고 있다.

광덕고는 7개 과목·14명의 교사들이 학생 5~6명을 지망 대학별로 나눠 오전 4시간씩 토론-글쓰기-지도교사의 첨삭 순으로 '1인 1대학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교사들로 구성된 '통합논술연구회'는 전용 홈페이지 '싱싱논술'(www.thinknonsul.com)을 운영, 학생들이 올린 글을 사이버상에서 지도한다.

◇학원가도 북적=광주시 동구 서석동 대성학원은 지난 26일 정시논술 대비반을 개설해 5주 과정으로 1주일에 5일간 5시간씩(첨삭료 포함 60만원) 집중 강의를 하고 있다. 강사가 수업을 한 후 학생들이 실전 글쓰기를 끝내면 다음날 1대1로 첨삭과 강평(講評)을 진행하며, 한 반에 2명의 강사가 들어가 수업하기도 한다. 300명 모집 정원이 다 찼다.

동구 산수동 플라톤 학원도 지난 22일 5주 과정(55만원) 대입 정시대비 논술 프로그램을 개설해 1주일에 3일간 5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각기 다른 과목의 두 명의 교사가 수업을 맡아 대학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100여 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

동명동 한우리 논술학원의 경우 5명씩 2그룹을 개설했다. 1주일에 4일간 5주 과정(35만원)으로 하루 3시간씩 강의하고 있다.

금호고 이규연 교사는 "대학의 논술 시험 경향이 통합형이기 때문에 여러 과목 교사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며 "단기간 논술 준비보다 학교에서 토론과 첨삭 지도를 꾸준히 받은 학생들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로스쿨 정원 60% 지방 배정 지역인재 수도권 집중 막아야"

9개 국립대 총장 촉구

전남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하 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정원의 60%를 지방에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당초 20.3%였던 사시 합격자 수·법학관련 도서 확보 등이 포함된 누적 실적 평가 비중이 사전 논의도 없이 39.8%로 높아져 '지역간 균형 배치'라는 큰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설치해야 하며, 소외·취약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남대 강정채 총장· 부산대 김인세 총장 등 9개 국립대학 총장이 참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시립예술단 채용 의혹 수사 착수

광주 시립예술단원 채용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은 최근 시와 문화예술회관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립국악관현악단에 들어가려면 1천~2천만원의 돈을 들고 가야 한다'며 는 내용의 글과 관련, 국악관현악단장 이모씨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글이 광산구 소촌동 A PC게임방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컴퓨터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PC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종업원도 당시 이용자를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접속기록 분석과 IP 추적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게시글 작성자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채용 비리 문제는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시립국악관현악단 이 단장은 28일 광주문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시자가 밝혀지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립국악관현악단은 현 단장 재임기간인 최근 4년 동안 19명의 신입단원을 모집했고, 시 홈페이지 등에는 '그 중 5명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사이버대학 내달부터 신·편입생 모집

전국 17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12월1일부터 200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원격대학은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듣고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17개 대학 중 학사 학위과정(4년제)이 15개교, 전문학사 학위과정(2년제)이 2개교이다.

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경희사이버대·서울디지털대·서울사이버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사이버대·한양사이버대 등은 다음달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여야 하고 2, 3학년 편입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5학점(2학년), 70학점(3학년) 이상을 이수하면 지원할 수 있다.

학비는 1학점당 6~8만원으로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학기당 100만원 안팎이다. /연합뉴스

파란하늘 찬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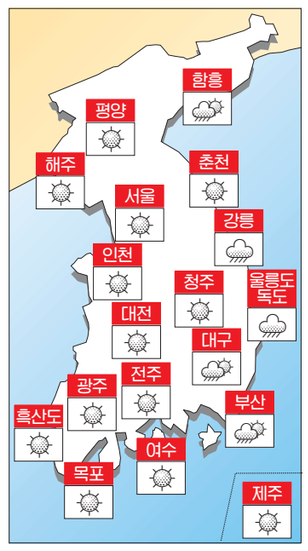
11월 29일 (음 10월 20일)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3~11℃
목 포	구름 조금	3~10℃
여 수	구름 조금	7~13℃
완 도	구름 조금	4~11℃
구 례	구름 조금	1~11℃
해 남	구름 조금	1~11℃
장 흥	구름 조금	1~11℃
고 흥	구름 조금	4~13℃
순 천	구름 조금	1~11℃
영 광	구름 조금	0~11℃
진 도	구름 조금	3~11℃
전 주	구름 조금	1~11℃
남 원	구름 조금	-1~11℃
흑산도	구름 조금	7~8℃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05:07 17:59 썰물 10:16 23:12
여수 밀물 12:28 --:-- 썰물 05:41 1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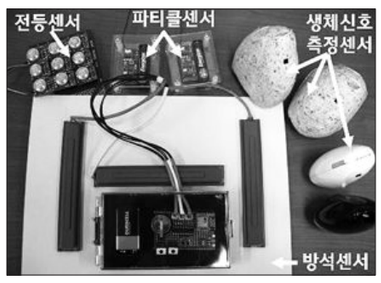
▲해뜸 07:20 ▲해짐 17:21 ▲달뜸 22:13 ▲달짐 11: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금)	1(토)	2(일)	3(월)	4(화)	5(수)
날 씨						
최저/최고	1/9	2/12	2/12	3/12	2/12	1/12

차세대 건강관리 '밥상 시스템' 개발

광주과기원, 센서 정보통해 최적음식 추천



각종 센서 정보를 통해 최적 음식을 추천해 주는 '밥상 시스템'〈사진〉이 개발됐다.

광주 과학기술원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소(소장 우운택)는 유비쿼터스 홈 환경의 건강관리 시스템인 '밥상 시스템'을 개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7 차세대 컴퓨팅 산업전시회'에 출품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전자통신연구원과 5억2천만원을 들여 공동개발한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방석에 앉아 생체신호 측정신호 센서를 잡으면 체질(당뇨·비만 등)·날씨·시간·장소 등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음식 및 재료를 추천하는 원리. 음식 및 재료는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의 자료를 근간으로 체질·상황별로 추천토록 설계됐다.

조도·습도·소음 등 주위 환경 정보는 독일의 한 회사에서 개발한 파티클 센서(실시간으로 주변 환경 등을 측정하는 감지기)를 활용했으며, 심박수·체온·피부전도도 등 사용자의 생체 신호 정보는 자체 개발한 휴대형 센서를 통해 각각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우운택 소장〉

음식을 먹는 동안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전등도 함께 동작한다. '밥상 시스템'의 크기는 가로 120㎝·세로 100㎝ 크기다.

연구소 우운택 소장은 "이 시스템의 장점은 사용자의 현재 건강상태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식료품 추천 분야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5주	11월 20일
	주택관리사	5주	11월 20일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환급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앞으로 세무직 많은 채용 예정!! =
7·9급 공무원
행정+공안+기술직
전국 유일의 정통 권위 강사진 총출강!!
개강 : 매월 1일과 15일 주·야(종합단과)반 모집(현재 상담접수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www.kjkimyoung.co.kr 일반대/ 사범대/ 약대/ 한의대
Final Course 개강 12월 3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란? 전문대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1학년 대비반 12월 17일 개강
김영편입·PMS학원(광주동부경찰서뒤) ☎227-8088

www.simmons.co.kr
당신의 'S'라인은 건강하십니까?
서있을 때 'S'라인이 누웠을 때도 그대로 세계특허 시몬스 포켓스프링만이 가능합니다
세계최초의 세계특허 더블 포켓스프링 시몬스에만 있습니다
136년 시몬스침대의 역사는 편안함의 역사였습니다.
인체곡선을 따라 온 몸을 골고루 받쳐주는
시몬스 독자개발의 세계특허 포켓스프링은 서있을 때의 'S'라인을
누웠을 때도 그대로 유지시켜줌으로써 가장 편안한 상태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딱딱해서 체압을 골고루
받쳐주지 못하는 홈이나 돌로 만든 침대와는 달리 인체의 'S'라인을
그대로 지켜주는 시몬스침대-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 늘 잠이 부족한 수험생, 과중한 업무로 피로에
지친 직장인, 'S'라인의 몸매를 유지해야 하는 여성에게 좋습니다.
이제, 시몬스의 편안함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침대의 생명은 'S'라인에 있다」
정상적인 사람의 척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마치 'S'자의 모양처럼 휘어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서서 걷는 인간의 신체적 특징에 의한 것으로써 신체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걷거나 뛸때 신체가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연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누웠을 때도 서있을 때와 같은 'S'자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침대가 가장 좋은 침대입니다.
스프링을 포켓속에 넣었다고 다같은 포켓스프링이 아닙니다. 형태는 모방할 수 있어도 세계특허 시몬스 포켓스프링만의 편안함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Simmons 시몬스침대
취급대리점 롯데백화점 (062)221-1760 현대백화점 (062)510-7851 빛고을가구백화점 1층 (062)959-5800 금남로점(수창초교 정문앞) (062)527-1575